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첫사랑 회복하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살후 1:3)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서로 보고 싶고 주고 싶고 감싸 안아야 할 주님의 피로 구속된 형제자매 들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돌이켜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의 식어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식어버린 형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협조 안내

공사내용: 본당 지하1, 2층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기간: 11월 6일(월) ~ 12월 30일(토)

지하 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주일 주차 및 통행이 불가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은 공사 기간 중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8면 참조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

10.29-11.12(주일)

문의: 임대영 목사 (010-5449-9224)

부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꿈양육부, 어와나부

교사지원분야

반교사

맡겨진 어린이(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

예배팀교사

예배와 관련된 영상, 자막, 좌석 배치, 디자인 등으로 섬기는 교사

행정교사

출석관리, 디모데교적관리 등 부서에 필요한 문서와 행정관리 교사

기타

보조교사, 새신자 교사

* 부서별 예배 시간과 장소는 8면 참고

* 신청서는 본당입구에서 작성하고 신청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일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

일시: 11월 17일(금) 금요집회시

장소: 본당

주관: 아멘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제 6기 제자훈련, 제 5기 사역훈련 수료식

일시: 11월 19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대상: 2023년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수료자

외선부 교사모집

"외선부가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이주민 선교부서로 새 출발하고자 합니다"

분야: 교사(생활지원, 맞춤서비스, 선교지원, 관리행정)

장소: 제2교육관 3층 여호수아홀

시간: 주일 10:50~12:00

문의: 선명환 목사(010-5214-9094)

벤엘 찬양대원 모집

찬양시간: 주일 3시 30분(찬양예배)

모집 기간: 11월 5일(주일) ~ 11월 30일(주일)

모집인원: 각 파트별 3명

문의: 총무 김선희(010-2297-0039)

신임서리집사 후보자 교육 및 면접 일정

2024년 신임서리집사 후보로 선정된 성도들을 위한 소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구와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는 교육과 면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일정

1차: 11월 19일(주일), 2차: 11월 26일(주일) 10:00~11:00

장소: 제3교육관 지하 2층

대상: 2024년 신임서리집사 후보자

2. 면접 일정

1차: 11월 19일(주일), 2차: 11월 26일(주일) 11:00~12:00

장소: 선교관 지하2층 메추라기홀

대상: 11월 19일, 26일에 신임서리집사 교육을 받은 후보자

방법: 면접 장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지난 주일(11월 5일) 설교 되새기기

첫 사랑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

(요한계시록 2:4-5)



요한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이나 숫자를 접하게 될 때면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을 중심으로 읽어나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 2-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하여 언급한 후 4-5장에서 펼쳐지는 하늘보좌의 예배 장면을 살펴보면, 일곱 두루마리의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며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관련한 일들은 피와 사망, 그리고 고통이 동반되는 환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견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란과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는 요한 계시록이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계 1:7)”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일곱 교회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전 우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영광 중에 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때가 오면, 마치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듯, 많은 사람들이 구름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게 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과 사후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기에, 성도는 환란과 고난 중에도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과 사후세계에 대하여 모호하다 못해 회색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땅의 존재하는 교회의 유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 우리 교회는 어떠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곱 교회 중 책망받지 아니하였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교회를 연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순교의 특성이 강했던 서머나 교회나 작은 능력으로도 큰일을 했음에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계 2:2)” 우리 교회는 수고함과 참고 견디는 인내함의 미덕 뿐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강조하셨던 원로목사님과 개혁주의적 신앙을 초점을 두셨던 2-3대 목사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셨던 4-5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 중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유일한 경계인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도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사랑’의 의미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첫 사랑이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감동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예수님과 첫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5절)” 사도 요한으로부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권면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은 그 의미가 다소 특별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의 실천이 성도들 사이에서 다소 약해졌기에, 사도 요한이 이를 성도들에게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유독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모두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첫 사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 사랑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에,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신이 나는 것은 물론 놀라운 기쁨도 얻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피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당사자로서 죄에서 해방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이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첫 사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참 감사했고, 이를 다시금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기쁨과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들이 자연스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평생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도 다시 떠오릅니다. 다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 없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길 테니까요”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떨어지다, 생각하다, 회개하다

그러나 살아가다 돌아보면, 어느 샌가 예수님과의 첫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다함은 거리가 멀어졌음을 뜻하기에 성경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혼자 추리하거나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그 곳과 순간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켜 유턴(U-Turn) 하듯 돌이키는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감으로,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고,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첫 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때마다 첫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찾아서 기억하심으로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턴하는 듯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직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What Happens When We Abandon the First Love

(Revelation 2:4-5)

Rev. Kyu Sam Han

Revelation is by no means a difficult book at all, however, when we encounter symbols or numbers appearing in Revelation, it is not easy to hide your heart becoming weighty. By the way, while you are reading Revelation in the context centering on what God wants to say, you come to face a new worl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ormer one. Examining a vision of worship service before the Throne in Heaven taking place in chapters 4-5 after seven churches are mentioned in Revelation 2-3, the event that happens when seven seals of the scroll are opened one by one, or the thing which is related with the seven trumpets and the seven bowls is the feature of trials that are accompanied by blood, death, and torture, so it looks fearful at a glimpse. However, the saints can confirm Revelation is a book of hope through the image of God who keeps and leads the saints in the midst of tribulations and disasters.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over Him. So it is to be. Amen.(Rev 1:7)" John the Apostle was commanded to convey what God revealed to him to seven churches. Jesus will come in the glory that all the space world will be able to know when Jesus is coming again, unlike when having come first as a newborn baby to Bethlehem. He proclaimed when the time would come, as if Peter, realizing Jesus is the Son of God, cried to Jesus, "Go away from me, Lord" by the Lake of Gennesaret, innumerable people would repent their wrongdoing and shed tears before Jesus who would be coming with the clouds. He proclaimed when the time would come, as if Peter, realizing Jesus is the Son of God, cried to Jesus, "Go away from me, Lord" by the Lake of Gennesaret, innumerable people would repent their wrongdoing and shed tears before Jesus coming with the clouds. Since the Bible says about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world after death clearly through the image of Jesus who is coming again, saints can look to the good and righteous God in the midst of tribulations and hardships. It is the aspect that Christianity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other religions which show grayish rather than ambiguous attitudes toward the end times and the world after death.

The Church in Ephesus

Seven churches appearing in Revelation(the church in Ephesus, and the church in Smyrna, and the church in Pergamum, and the church in Thyatira, and the church in Sardis, and the church in Philadelphia, and the church in Laodicea) actually existed at that period, however, today we can presume they symbolize types of churches existing on this earth. If so, what type we can say our church belongs to? I have a wish of relating our church to the church in Smyrna and the church in Philadelphia which were not rebuked among seven churches, however, our church seems to be somewhat distant from the church in Smyrna whose characteristics of martyrdom were strong and the church in Philadelphia which was praised for having done great work through small ability. "I know your deeds and your labor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cannot tolerate evil people, and you have put those who call themselves apostles to the test, and they are not, and you found them to be false;(Rev 2:2)" I think our church is a pre-eminent church not only in the virtue of hard work, perseverance, and endurance but also in the ability to discriminate false teaching. It is because the ability to discern the word has become outstanding through the senior pastor who emphasized the faith of martyrdom, the second and third pastors who focused on the Reformed Faith, and the fourth and fifth pastors who concentrated on the Cross Gospel. I think the church in Ephesus resembles our church in that it was most praised among the seven churches. Accordingly, the only warning to the church in Ephesus, 'Do not forsake your first love', is considered to be the exhortation to our church.

The meaning of the 'first love'

In general, the first love with Jesus means the moved feeling and joy we feel when we meet Jesus personally for the first time and walk together with him. I hope you and I have a blessing that your and my first love with Jesus is restored completely. If there happen to be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first love with Jesus, I bless they will experience the emotion and grace. "Therefore, remember from where you hav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deeds you did at first; or else I am coming to you and I will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unless you repent.(v. 5)" The first love of the church in Ephesus, which was exhorted by the Apostle John to remember where it had fallen and repent was rather extraordinary. According to scholars' perspectives, since the practice of a new command Jesus gave, 'Love one another' became weak a little between saints at the time when Revelation was written, John the Apostle emphasized it again to the saints. I think this is a reasonable assertion when we recall the fact that the command of Jesus 'Love one another' appears especially very often in the Gospel of John and the fact that John, a disciple Jesus loved, wrote both the Gospel of John and Revelation.

'First love' that must not be lost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Rev 1:5)" The first love that the church in Ephesus lost was no other than Jesus. Since Jesus in person became the faithful witness, saints are not only excited to witness Jesus but also gain amazing pleasures. That is, the great joy of being liberated from sins that the parties to having the love of Jesus who shed blood for us could taste was the first love with Jesus the church in Ephesus experienced. In retrospect, I was greatly thankful for the cross of Jesus and salvation, and whenever I recollect this again, I can't imagine how really joyful I am. It's because when I think about my first love with Jesus, the joy of having a friendship with God and the hearts I gave to God naturally occur to me. The resolutions, "I will worship only Jesus for my whole life.", and "I will live serving only Jesus.", also come to mind again. It looks somewhat haughty, however, I used to resolve to serve Jesus till the end confessing "Therefore, God will suffer a great loss without me because I will worship and serve Jesus well." I think the first love of the church in Ephesus is not greatly different from this.

Fall, remember, repent

However, looking back as we are living, one day we get to find ourselves fallen from our first love with Jesus. To have fallen means to be distant, so the Bible tells us to remember from where we have fallen. It commands us to remember the place where and the moment when we have fallen, not simply to deduce in our brain alone or fantasize. This is because we can go back to the original feature through the memory of where and how we have fallen. Taking a U-Turn from the situation that you are going on the wrong way is repentance. By moving toward the right direction again through repentance, we can stand properly before God once again. Beloved, I hope you remember the beauty of your first love with Jesus and preserve it well. If you happen to have lost your first love, I hope every time you seek and remember where your first love has fallen, and become blessed saints who can go back before God.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all give our hearts to the Lord once again through repentance like taking a U-Turn, and go straight forward to the Lord with our hearts given to the Lord.

영역·이울의



충현교회학교 미취학부 이야기 2023년 가을학기 오렌지스쿨

풍성하고 아름다운 10월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미래세대를 위한 오렌지스쿨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아부는 디모데클래스로, 유아유치부는 유니게학교로 믿음이 쑥쑥 자라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유아 61명 부모와 조부모님을 93명이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맺기를 소망하여 함께 참여합니다.



영아부 디모데클래스부모소감문

전도사님의 말씀뿐 아니라 매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오감활동과 즐거운 찬양이 있어서인지 수연이가 더욱 더 재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네요ㅎㅎ) 디모데클래스를 통해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고, 아이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어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정수연 엄마 이지윤

이렇게 이든이의 마지막 디모데클래스가 끝나니 넘 아쉬워요. 이든이가 처음 디모데에 참여했을 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뛰어다니며 율동도 하고 즐기는 모습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이든이는 충현교회 영아부가 같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클래스는 조부모님과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든이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시고 여러가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시니 이든이도 할머니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조이든 엄마 심경하

날씨까지 완벽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갔습니다. 매번 여러가지 주제로 딱 맞는 코스튬까지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 사진까지 남겨 주시는 센스. 섬김의 분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려다 우리 선생님들 병 나실까봐 걱정됩니다. 김은호 엄마 정지혜

뚝뚝뚝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과 오감놀이와 와우북 만들기 등으로 신나게 몸으로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로 꼭 찬 그 어느 곳보다 멋진 디모데클래스!! 모든 순서마다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정성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유이솔 엄마 김연희





유아유치부 유니게학교 부모소감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아이의 미래를 고민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조언해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본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유아부 조하은 엄마 강지은

아이들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아부 김주은 엄마 최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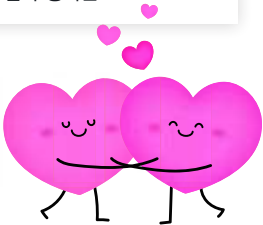
가정과 회사, 24시간을 쪼개어 쓰는 듯한 바쁜 일상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끔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던 저였지만, 오렌지스쿨을 통해 완벽하기 위해 애를 썼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유치부 김호재 엄마 김소연

주님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렌지스쿨을 위해 준비해주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최윤 엄마 김민희

부모교육이라고 듣고 시작하게 된 오렌지스쿨은 정말로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매 수업마다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영육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아부 최지훈 엄마 장혜원

애써주신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섬김이 정말 대단하시고 저 또한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윗세대를 본받아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부 권세린 엄마 김현정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렵고 때론 책임감에 무거울 때도 있는데, 세상의 기준과 가르침이 아닌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싶은 소망을 오렌지 스쿨을 통해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언이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내고 즐기고, 수료 때도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 주님 안에서 한 뼘 성장한 것 같아 대견했습니다 ^^ 유치부 조유안 엄마 홍다은



고등부에 출석하는 수험생 명단

1교구 김우찬	1교구 창수민	2교구 김예홍	2교구 박준하	2교구 송수빈	3교구 문인하	3교구 서동한	4교구 김지인	4교구 전유현
5교구 박수민	5교구 박환의	5교구 윤예린	5교구 한주은	6교구 김하진	6교구 김수현	6교구 박찬하	6교구 이찬주	7교구 오장민
8교구 김규영	8교구 배승지	9교구 김민수	9교구 윤예원	9교구 이지현	9교구 임세현	9교구 최필규	12교구 노 윤	12교구 박상원
12교구 박채은	12교구 윤진호	12교구 이유정	고등부 권희우	고등부 김도윤	고등부 김세인	고등부 김정규	고등부 김지성	고등부 박린우
고등부 박재균	고등부 송두현	고등부 심무현	고등부 안철수	고등부 오정우	고등부 이예나	고등부 최재훈	고등부 한동현	고등부 한지영
고등부 허보윤								46명

2023년 11월 16일(목)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입니다.
믿음의 다음세대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마무리 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에서는 교구에 속한 다음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수능 학부모기도회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 12시(이후 자율기도)
장소: 제 1교육관 504호 고등부실 및 온라인(Youtube 총현교회 고등부 검색)
대상: 수험생 학부모 및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



2023년 열 번째 마더와이즈 회복을 마치고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더와이즈 <회복> 훈련이 23명의 마더들과 9명의 리더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모집부터 훈련 마치는 그날까지 가슴 두근두근했던 마더와이즈 <회복> 7주간의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회복시켜주시는 시기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은 동일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단순한 성경공부 인줄만 알았지만 7주동안 하나님의 신부로 찢힌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너무 그리웠던 찰나에 5년 만에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점을 같은 팀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 전날부터 마더와이즈 가는 시간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짜임새 있는 진행과 항상 나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던 섬김의 리더님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내가 있는 곳도 멋진 사명과 소명을 알려준 마더와이즈. 삶이 간절하게 정리 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마더와이즈 훈련을 통해 깨달은 사랑을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올 해의 가장 잘한 일은 '마더와이즈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A 마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다른 교회에서 진행하는 마더와이즈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좋았던 기억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훈련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예전과 주제도 다르고 레위와 롯의 이야기도 별로 와 닿지 않아서 처음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씩 묵상하듯 읽고 공부하다보니 점점 롯이 레위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나도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신 것에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교재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의 주제처럼 나도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원했지만 망설여왔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말 주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살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결단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B 마더

마더와이즈 회복편 7주 과정이 이번 주 목요일(11/2) 마치고 되었다. 마더와이즈와 보낸 7주간의 시간이 되짚어보니 한 주 한 주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은혜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공동체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 교재를 읽으며, 갈 길 잃은 내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 마더와이즈 공동체에 시선을 머물게 해주시고 마음을 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엄마로서의 영적회복이 절실하고 갈급한 나에게 너무나도 은혜롭고 귀한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체들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묵아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오랜만의 경험인지 모른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을 속히 제거해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매일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 C 마더

어떤 훈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좋다는 소문만 듣고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작했던 마더와이즈-회복. 7주과정의 묵상을 했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회복으로 나의 상처를 돌아보고 회복 할 수 있었고, 좀 더 빨리 마더와이즈를 알았다면 나의 상처도 덜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만져주심에 감사하였다. 묵상을 하면서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질문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1주일에 한번 만나 나눔과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원들이랑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 마더와이즈 - 자유, 지혜 시간도 기다려지며 그 안에서 주실 말씀도 기대가 된다. - D 마더

기도하며 하루하루 다가오는 마더와이즈 시작일.. 아이의 고열로 인해 갑작스런 입원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자 기도가 부족했나, 왜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은 잠시.. 다시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아이와 단 둘이 마더와이즈 묵상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며 나와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은 전혀 없었고 마더와이즈 리더들과 조원들의 중보기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마더와이즈가 중반으로 향하며 조원 개개인의 삶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실지 기대의 찬 눈빛을 잃고 마지막을 향한 묵상의 시간을 더욱 기다렸다. 마침의 시간이다. 나의 처음 시작했을 때의 답답한 마음과 사방이 가로막힌 듯 철벽에 갇혀있는 듯한 나의 심정은 하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다.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쉽사리 되지 않음에 낙담하였지만 그럼에도 나를 기뻐하시는 여인이라 칭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 E 마더



제 6기 제자훈련생 소감문

수업을 마무리 하는 글을 쓰려고 하니 진한 아쉬움과 추억에 사로잡힌다. 처음 수업을 할 때 너무나 거창한 계획을 세웠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지만 이렇게 수업을 마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계명의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음에 매 수업마다 설레고 즐거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거창한 질문이 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물론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에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자체가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학기 초에 운동복 두 세트를 준비해두고 도서관에 갈 거창한 계획을 세웠었다. 조금의 시간도 낭비하기 싫어서 비싼 다이어리도 구입하여 공부와 훈련계획을 뽁뽁하게 세웠었다. 그러나 훈련 시작 전에 이미 나의 생활은 온갖 누수와 상가민원으로 삶이 마비되기 직전이었다. 제자훈련을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다. 오리엔테이션 때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제자훈련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들을 이겨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업에 나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었다. 10년 치매로 고생하시다 3월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 건물 대공사도 하고 사랑부 수련회도 잘 마쳤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직접 경험하는 한 해였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였으나 주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던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혜진 집사

모태신앙으로 늘 같은 수준의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소망하며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재에 담긴 말씀의 깊은 뜻을 배우고 깨우치며, 독후감을 쓰면서 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해진 시간의 큐티와 기도의 시간은 일상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암송의 유익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제자훈련반의 교우들과는 웃고 울며 진심을 다한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하였고 중보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소망하는 한 팀이 얼마나 귀한지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 저의 소망대로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전도와 봉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그 사랑을 전하고 행동하는 제자 되길 결단합니다. 제자훈련에 초대해 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미영 권사

지난 1월 제자훈련을 마음먹고 일 년간 순종으로 나아가보자는 다짐을 하였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러한 내 모든 결심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말씀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증거는 소망을 더욱 강하고 깊게 가지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삶에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모두 이겨내고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쉽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논리를 머릿속으로만 이해했으나 이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오직 말씀이 세상의 진리이고 생명임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나의 자식들이 소중하다고 생각 하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하찮은 것들이 아빠의 시선으로 바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다고 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울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의 삶에서 더욱 성경이 가까워지게 해 주시고 말씀을 더 알게 해 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계획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자훈련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 한 수많은 제자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게 해 주시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박준영 집사



<전시 한 컷>

카페 내 전시 작품 및 온라인 전시 작품 관람



<카페 한 컷>

웹툰 캐릭터 컵홀더와 냅킨, 메뉴판으로 카페 이용



<웹툰 한 컷>

두 컷 엮서 웹툰 그리기 및 웹툰 퍼즐&큐브 맞추기 체험



<사진 한 컷>

웹툰 프레임 네컷 사진 및 웹툰 등신대와 사진 촬영

충현복지관 <웹툰 카페: 네 컷> 운영 안내

행사명: ‘네 컷 속 네 세상과 네 컷 속 네 세상이 만나 우리의 세상이 되는 곳’

<웹툰 카페: 네 컷>

행사내용: 발달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 및 굿즈 관람, 웹툰 컵홀더 및 냅킨을 활용한 카페 이용, 웹툰 그리기, 퍼즐 및 큐브 맞추기 체험, 웹툰 네 컷 및 포토존 사진 촬영

행시기간: 2023.11. 7.(화) ~ 11.19.(일) 09:00-17:00 (월요일 휴무)

행사장소: 카페드림

<웹툰 카페: 네 컷>에 방문하시어 발달장애인의 세상을 들여다보고, 남은 공간을 본인들의 세상으로 채워 발달장애인과 동행하는 세상을 만들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협조 및 주차안내

■ 주요공사 내용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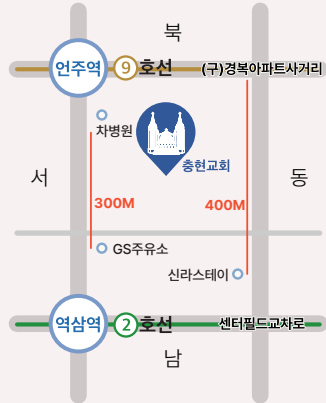
- 1. 공사내용 : 본당 지하1, 2층 주차장 바닥, 천정, 벽체 등의 환경개선
- 2. 공사기간 : 2023. 11. 6(월) ~ 2023. 12. 30(토)
가. 지하2층 폐쇄 : 11/6 ~ 11/26 (주일 주차불가)
나. 지하1층 폐쇄 : 11/27 ~ 12/30 (주일 주차불가)

■ 주차 안내 사항

본 교회를 중심으로 동편(언주로 400m)과 서편(논현로 300m)의 간선도로변에 공휴일 주차(06시~20시)가 가능하오니많은 이용바랍니다.

<유의사항>

- 1. 구간 내 견인구역도 주차가능 (공휴일은 견인되지 않음)
- 2. 단 소화전 앞, 진입로 통행방해, 길모퉁이 주차 등은 견인될 수 있음



통일 선교 기도회

통일을 소원하며 미리온 통일인(탈북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일시: 2023년 11월 19일(주일) 16:40~17:40

장소: 베다니홀

주관: 선교위원회

강사: 최준호 목사

11월 정기 당회

일시: 오늘, 11월 12일(주일) 찬양예배 후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11월 22일(수), 12:00,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 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821	김대원	고등부	
2	1614	류슬아	고등부	윤찬영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909	박승웅	기본과정	이진규
2	1923	오윤주	기본과정	
3	1924	이시울	기본과정	
4	1925	이은주	기본과정	박철순
5	1926	최문숙	기본과정	박철순
6	1929	국하람	기본과정	이희우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901	곽규환	기본과정	윤순규
2	1902	정미현	기본과정	윤순규
3	1903	김종호	기본과정	윤순규
4	1904	안경자	기본과정	윤순규
5	1906	고상현	기본과정	고정연
6	1907	공은진	기본과정	고정연
7	1910	고정옥	기본과정	고병국
8	1911	이지연	기본과정	고병국
9	1916	상아현	기본과정	윤순규
10	1917	김익현	기본과정	윤순규
11	1919	이채원	기본과정	이성관
12	1920	이승재	유아부	이성관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922	김세영	청년2부	

결혼

- 1. 장민호 군(장동규 집사·심정숙 권사의 아들, 5교구)과 김미란 양(김태권 씨·이덕선 씨의 딸, 11교구) / 11월 18일(토) 11:00 서울 더화이트베일 3층 V홀
- 2. 위석민 군(위수복 성도·이진행 타교권사의 아들, 청년2부)과 이혜린 양(조윤재 안수집사·김미숙 권사의 딸, 9교구) / 11월 18일(토) 15:00 파티오벨라 1층

별세

- 1. 김금숙 성도(장진영 권사의 모친·남중호 장로의 장모, 7교구) / 6일 별세, 9일 장례
- 2. 김옥분 성도(고민경 집사의 모친·이한우 성도의 장모, 9교구) / 7일 별세, 10일 장례
- 3. 권정미 집사(권시호 은퇴집사·강미숙 권사의 딸, 이지원 성도의 모친, 7교구) / 8일 별세, 11일 장례
- 4. 장만실 은퇴권사(3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예배 담당(11/15~11/19)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1/15	수요 I	최종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성도 (계 17:14-18) 이다현 목사	박요셉	장인실
11/17	금요집회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라 (신 29:1-9) 김주한 목사	이기영	
11/19 추수감사주일	주일 I	감사, 감사, 감사 (골 3:15-17) 한규삼 담임목사	권순동	김상열
	주일 II		박동진	장기락
	주일 III		위안복	홍순길
	주일찬양	혼인 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마 25:1-13) 신경철 목사	김유석	변창대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1/13~11/19)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3 (월)	전영재/백재홍	욥기 9:17-35	10교구
14 (화)	권순동/이흥기	욥기 10:1-22	전교인
15 (수)	김유석/김원기	욥기 11:1-20	전교인
16 (목)	권혁근/최승철	욥기 12:1-25	7교구
17 (금)	문진호/박진수	욥기 13:1-19	3교구
18 (토)	임대영/임대영	욥기 13:20-14:22	전교인
19 (주)	박영환/박영환	욥기 15:1-16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김유석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7교구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시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재정위원	장철규 건축위원	이보신 새가족위원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조종민 전도위원	이상복 봉사위원	지규성 선교위원장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아멘찬양대장	이창희 행정위원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힐렐루찬양대장	최현규 건축위원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서울위원장	허만선 총현동산이사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박원화 봉사위원장	이상배 당회부서기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건축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건축위원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선교위원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새가족위원	강태영 의선부장	장기락 반앨찬양대장	홍순길 교육위원장
정인욱 기획위원장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찬양위원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헌금부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욱 7교구장	최승민 재가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중보기도부장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차량관리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예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람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홍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봉사위원회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이일영 청년1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코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성	김산수	김영남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섭	홍정화		